“화엄경 완독, 중생 위한 회향의 실천”

해인사, 5월 17일 법계마당서
화엄경 제1차 완독 회향 대법회
3만여 사부대중 1170일간 정진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17일 봉행한 ‘대방광불화엄경 제1차 완독 회향 대법회’에서 “1170일간의 정진은 화엄경의 세계를 삶으로 되새기는 수행의 여정이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5월 17일 경내 법계마당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제1차 완독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3년 3개월 동안 이어진 〈화엄경〉 독송 수행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하는 이날 법회에는 무관 대종사, 부주지 학암 스님과 대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1170일 동안 쉼 없이 이어온 〈화엄경〉 독송은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나와 이웃, 중생 모두를 위한 회향의 실천이었다”며 “3만여 명이 동참한 이 수행은 성불을 향한 대승의 정진이자, 육도 중생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장엄한 공덕행”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이어 “〈화엄경〉 독송은 십바라밀과 보현행원을 몸소 실천한 수행”이라며 “몸과 마음으로 보시하고 인욕하며 정진할 때 회향의 공덕이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혜일 스님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판각 불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며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천년불사로, 환경 위기의 시대에 부처님의 진리를 새기기 위한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기 〈화엄경〉 완독 법회에도 불자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관 대종사는 〈화엄경〉 ‘입법계품’ 중심의 회향 법문에서 선재동자의 53선지식 친견 여정을 언급하며 “바라밀 수행은 곧 부처의 길로 향하는 정진이며,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는 화엄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세상의 티끌처럼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큰 바닷물도 남김없이 마시며, 허공을 다 계산하고 바람을 얽어맬 수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명할 수 없다”며 부처님 공덕의 수승함을 설하고 이를 닮아가려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동참자들은 최태임 불자가 대표로 낭독한 회향 발원문을 통해 “〈화엄경〉 독송의 공덕이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건강, 지혜를 구하는 이들의 총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 공덕이 지혜의 세상을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인사는 이날 심원사 응관 스님에게 공로패를, 서울 금강자비회와 부산 금강정진회, 대전 귀빈불자회, 성산 보현회, 경산 수정사, 부산 장금선원 등 6개 단체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코끼리행복문화센터 소속 개인 4명에게 2백만 원의 자비나눔기탁금을 전달했다.

동명불원, 산불 피해 주민에 구호물품 전달

5월 14일 안동실내체육관서 현지 요청 품목 지원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원장 원순 스님)은 5월 14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동명불원 신도회 및 재단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지 재난종합센터에서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구호물품을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백미 10kg 200포를 비롯해 믹스커피, 휴지, 주방세제, 라면, 42인치 TV 등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동명불원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위로와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성 스님 문도회, 산불 기금 전달

5월 19일 산청군에 천만 원 기탁
“큰스님 원력 자비 나눔 회향”



영공당 도성 스님 문도회가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자비 성금을 전달하며, 도성 스님의 49재를 회향하고 가르침을 기념했다.

문도회는 5월 19일 산청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1000만 원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종범 스님(산청 심적사 주지)을 비롯해 유경 스님(부산 석탑사 주지), 유진 스님(태종사 주지)이 참석했으며,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도 함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적사 주지 종범 스님은 “세수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셨던 은사 스님께서는 지난해 산청의 자연과 역사에 깊이 감동하시며 심적사에 두 차례나 방문하셨다”며 “49재 회향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나누고자 문도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전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덕민 대종사, 전통 강맥 전수

5월 30일 기림사서 대법회
두 번째 전강, 후학 7명에



현대 한국불교 대강백 덕민 대종사가 후학 7명에게 전통 강맥을 전수한다.

덕민 대종사〈사진〉는 5월 30일 오전 11시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전법전강(傳法傳講) 대법회’에서 연광 스님(송광사), 석산 스님(범어사), 각전 스님(범어사), 해등 스님(월정사), 능주 스님(범어사), 현학 스님(범어사), 명신 스님(동화사)에게 강맥을 전한다. 조계종의 대표적 강맥인 고봉가풍(高峯家風)을 계승한 덕민 대종사의 두 번째 전강(傳講)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덕민 대종사는 석전 영호 대종사로부터 고봉 태수 대종사에게 이어진 강맥을 우룡 종한 대종사를 통해 전수받았고, 고산 혜원 대종사에게서 율맥(律脈)을 이어받았다.

스님은 1956년 13세에 우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청암사 강원을 졸업하고, 합천 태동고전연구원에서 15년간 한학을 수학했다. 청암사, 법주사, 쌍계사, 범어사, 불국사 등 제방 강원에서 약 40년간 강석을 펼쳐왔다.

이날 법회는 대강백 무비스님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증명하며,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종단 강백, 고봉문도 스님들이 대거 동참할 예정이다.

기림사는 “전강법회는 한국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잇기 위한 역사적 전승의 장(場)”이라며 “강맥 전수는 곧 불교 교육과 수행의 뿌리를 잇는 일이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추본,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 개최

5월 29일~31일, 부산 안국선원 등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 시원암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진행되며,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운영된다.

민추본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아카데미는 총 6개의 강좌와 현장 견학으로 진행된다. 김진환 전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주는 협력의 가치와 미래 비전’, 김일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북한 농업을 중심으로 본 기후위기와 남북협력의 과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 ‘북한 보건의료 동향으로 본 남북 공동대응의 과제’, 장창준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전망’, 이연희 사단법인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적대국가 선언 이후 남북관계 및 민간교류협력 재개 전망’, 이창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외래교수가 ‘DMZ의 역사와 가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31일에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견학한다.

민추본은 “분단으로 인한 혐오와 갈등 그리고 남남갈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아카데미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교계가 평화를 견인하는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통해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데미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가 후원한다. 참가비 무료. (02)720-053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시대 요구에 호응한 불교’ 학술대회

반야불교문화硏, 6월 8일 통도사서
대만 · 티베트 · 일본 불교 조명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6월 8일 오후 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시대적 요구에 호응한 불교는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2025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대만불교 4대 종문의 발달과 인간불교 △티베트불교의 세계화 연구 △일본 정토진종 교단의 발전과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각 발표 후에는 강경구·양승규·구자성 교수의 논평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대만, 티베트, 일본 등은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신도층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러한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차 완판 기념 재출시 소량 한정판 금값 상승으로 품절 대기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6,560,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g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230,000원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